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3. 이 큰 구원

(1) 아들로 오신 구원

2018. 7. 6. 이현래 목사님

[히브리서 2장]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5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6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16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절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바치고 있는 말씀이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중에는 불꽃도 있고 바람도 있는데, 그 중 제일 분명한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모세에게도 찾아가셨다. 하나님의 사자, 우리말로 하면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행하기도 하셨다.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천사들을 시켜서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거의 구별 없이 나타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도 천사인지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말도 있다. 천사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후기에 내려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약을 볼 때는 전부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구조이다.

천사들이 대행했다는 말은 꼭 말씀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밖에서 사람을 상대하여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벌을 내리기도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는 천사시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 마귀가 누구인가? 이탈한 천사이다. 결국은 천사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면 왜 천사에게 속았을까? 마귀라고 생각했으면 속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이 볼 때 마귀로 보인 것이 아니라 천사로 보인 것이므로 천사에게 속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원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갖고 있다. 그 많은 제한 때문에 천사를 부러워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천사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보다 더 훨씬 월등하게 보이는 천사가 부러워지게 된다. 그러면 천사에게 속는 것이다. 왜 속는가? 꼭 무슨 말을 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만족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허물어지니까 속는다.

하나님이 심히 만족하셨는데 천사를 보니까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천사가 없었더라면 심히 만족하셨다는 말이 아멘이 될 텐데, 천사를 보고 나니까 아멘이 안 된다.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어 있다. 천사와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아무 문제없이 잘 살았다. 도시에 가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열등감이 생긴다. 나는 왜 흙을 밟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도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디를 왔다갔다 하더니 돈을 번다는 생각이 당장 든다.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농촌에 살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농사만 한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져서 공부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세계를 비교해보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상대적이다. 모두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다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한다. 그런데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

마귀는 천사가 이탈한 것이니까 사람보다 월등하다.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3:6).”고 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도 똑같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항상 부족하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아도 부족하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만족하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아무리 해도 기도가 부족하다.

나도 뭣 좀 얻어 보려고 쫓아다녔다. 해도 해도 안 되는데 늘 돌아보는 것은 무엇인가?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저 사람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를 받을 텐데,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열심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부족해진다.

교회생활을 하면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이 가려고 하면 더 부족해진다. 왜 그런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3분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열등감이 생기겠는가.

사람은 끝없이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지금도 역시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천사숭배가 역력히 드러난다. 개신교는 노골적으로 천사숭배를 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내용은 모두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

천사같이 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말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창3:6).”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을 졸졸 따라 다닌다. 형한테 맞으면서도 따라 다닌다. 왜냐하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뛰

든지 잘한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졸졸 따라 다닌다. 사람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다. 천사 같은 어떤 모양에 사람들은 모두 빠진다. 옛날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생전 그런 것을 보지 않았다. 원래 다니던 교회도 그런 것이 없는 교회였고, 공부하던 신학교도 그런 것이 없는 학교였다. 현장에 나오니까 그런 것이 역력하게 보였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던 교회는 독립문 바로 위에 있었고, 그때 순복음 교회는 서대문 사거리에 있었다.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척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계속 집회가 열렸다. 가보면 당장 열등감이 느껴진다. 병 나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면 수두룩하게 일어난다. 방언도 못 받아서 절절 매고 있는 판에 순복음 교회를 가보면 열등감이 생긴다.

그것이 천사송배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보면 사람이 열등감에 빠진다. 같은 사람끼리도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는데,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

사람들은 천사송배를 하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천사송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와 하나님이 혼돈된다. 딱 구별될 것 같지만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어버린다. 제자들이 왜 비참하게 되었는가? 천사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다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렸다. 배운 교리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다 끝나버렸다.

고기 잡으러 가자는 이 한 마디가 그들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이었다. 원래 어부들이었다.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이다. 천사 같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천사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도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우리한테는 없는 줄 아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기독교인에게 없는 줄 아는가? 마찬가지이다. 만일 자기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하시던 그분이 죽어 버렸으니 어쩌겠는가.

지금 많은 믿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의 구원도 구별되지 않는다.

나도 그랬다. 나는 분명히 나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인 구원을 받았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 동서남북

이 꼭 막힌 자리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저 섬에서 서울까지 왔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역력하다.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갔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자서전을 써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오로지 그분이 했다고 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목이 <주의 손에 이끌려>이다.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부러 감추어놓고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앞날을 걱정할 때는 나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뽑아도 책임질 텐데, 전혀 모르는 나를 불러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나를 불렀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전혀 앞날이 걱정되지 않았다.

참 묘한 것은 앞날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스스로도 하나둘씩 나가거나 자리가 없어서 놓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일이 없는데, 나에게 제일 먼저 교회로 나가라고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역력히 안다. 얼마든지 내가 증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니까 내가 예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는 나에게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그때 나는 보통 사람들이 아는 대로 알았지 예수를 모른 셈이다.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왜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신관이 문제가 되는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신*길 교수를 중심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다. 문제는 신관이다. 신교수님이 보니까 신관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잘라낸 사람이 볼트만(Rudolf Karl Bultmann)이라는 사람이다. 비신화화를 주장했다. 신화적인 부분을 잘라내어야 된다. 오늘날의 과학시대에 물위를 걸어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것은 신화적인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 다음에 대안이 없으니까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다시 바르트(Karl

Barth)가 나와서 비록 계시가 합리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시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 계시 안에 분명이 뭔가가 있다고 나왔다. 바르트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문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문자주의로 못을 박거나 아니면 바르트 같은 입장으로 돌아가서 계시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길이 없다.

그런데 톨리히(Paul Tillich)는 성경에 대한 것보다 기독교 신관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모두 엉터리라는 것이다. 모두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쳐서 완전히 청소하고 정리해 버렸다. 그렇지만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대안은 또 모호하다. 위에 계신 하나님, 신 위의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회랍인들의 신관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처음에 서울을 가니까 무허가 판자촌이 산이라는 산을 다 덮고 있었다. 인왕산 꼭대기까지 판자촌이 들어찼다. 하룻밤 지나면 하나가 생기고, 하룻밤이 지나면 또 하나가 생겼다. 전부 판자촌이었다.

4.19 이후 치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시골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판자촌을 만들었다. 엉망이었다. 길이 제대로 있는가? 하수도가 제대로 있는가? 상수도가 제대로 있는가? 저 밑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우물물이 산에 없고 저 밑에 있었다. 뒤로 시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펌프로 수도물을 산꼭대기로 올려서 산동네에 배급했다.

그런데 이 땅이 보통 땅처럼 파기가 쉬운 땅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최소한 1미터 이상을 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관이 동파가 된다. 판자촌을 지어놓은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고 석비레라고 하는 것인데 보기 드문 것이다.

돌이 썩어서 모래가 되어버린 것을 석비레라고 하는 땅인데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부슬부슬 불거진다. 조금만 들어가면 곡괭이로 찍어도 2cm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겨우 10cm 정도 파서 수도관을 넣어놓으니까 겨울이 돌아오면 동파가 되어 사방에서 난리이다. 양쪽에서 전기로 뚫는데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내가 왜 이것을 잘 아는가 하면, 내가 갔던 교회가 바로 일반 동네와 판자촌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보았다. 내가 있던 교회도 18년이 되었는데도 수도가 없었다. 내가 간 후에 수도를 놓았다.

그런 정도이니 서울 시내가 어떻게겠는가? 판자촌을 시청에서 단속한다고 때려 부수고 다녔다. 그런데 법이 그런지 지붕이 덮어지면 부수지를 못한다고 한다. 집

짓는 사람들은 밤새 지어서 지붕을 덮어버린다. 다음날 아침에 보면 허물 지를 못한다.

철거관이라는 사람들이 낮에 술 한 잔씩을 먹고 긴 몽둥이를 갖고 온다. 지붕을 올리기 전에 벽을 허문다. 이 싸움을 계속하지만 밤마다 몇 개씩 나오니까 감당을 못한다.

그 후로 김*옥 시장 때 대책을 세우고 일제히 철거했다.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딱지를 주고 철거했다. 그래서 처음 생긴 아파트가 방 2개 8평짜리 아파트이다. 그것이 허물어져서 난리가 난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 사건인데, 그 아파트가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생겼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기초공사를 하는데 땅을 팔 수가 없다. 요즘처럼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괭이로 파야 하는데, 1m를 어떻게 파는가? 못 판다.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5층짜리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처음에는 무지무지 단단하다. 그러나 비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면 푸석푸석해진다. 그래서 넘어진 것이다. 공사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기초가 잘못되어서이다.

내가 역력히 보고 살았다. 뒤로 성남 같은 곳으로 이동을 시켰다. 지금 성남시가 그래서 생긴 도시이다. 성남시를 건설할 때도 보았다. 완전히 출애굽기가 생각났다. 25평을 주니까 천막을 치고 집을 지었다. 여기 저기 천막이 있는 곳을 보고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틸리히의 신학은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는 것이다. 정리하는 것이다. 틀림없이 맞기는 하지만 그 다음의 대안이 없다. 철거를 해놓고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그냥 나가라고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나마도 8평짜리 아파트를 주니까 너무나 좋아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없었다.

전체 서울 시내에 '내자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다. 2층짜리 작은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판자촌에 살다가 5층짜리 아파트로 오니까 대궐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런 시대였다.

만일 그때 아파트를 주지 않고 나가라고 했으면 혁명이 또 일어났을 것이다. 서울 시민보다 판자촌 사람이 많았던 시대이다. 인왕산 꼭대기이면 바로 청와대 뒤쪽인데 판자촌이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 생각에 그것을 싹 정리한 사람이 틸리히라고 생각이 된다. 그 다음에는 새 집을 지어야 된다. 도로 판자촌을 지으면 되겠는가? 다른 집을 지어야 된다.

허물기는 쉬운데 왜 새 집을 짓기는 어려운가? 이 새 집이라는 것은 판자촌이냐, 허가된 집이냐, 무허가 집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희랍인들의

사고방식은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것이나, 아니면 저것이나는 것이다.
판자촌을 철거하면 아파트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다. 그것은 어차피 다시 그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하다. 8평짜리 아파트를 다 뜯어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살만한 집이 못 된다. 조그마한 방 두 칸이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부엌이고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이었다. 한 라인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다. 그 많은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려면 줄을 서야 하니까 난리였다.
지금 사람들 같으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짜로 주어도 안 한다. 그래도 그때는 최상의 집이었다. 수도도 들어오고 화장실이라도 있었다. 판자촌일 때는 화장실을 비울 때가 없다. 똥 치우는 사람들이 와서 지게로 지고 나갔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 달동네에 화장실이 넘친다. 내가 직접 보았다.
교회도 정리할 것이 많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다. 교회가 뭔가가 잘못 되었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가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히2:3).”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이 같이 큰 구원”이 대책이다.** 천사가 말하기도 했고, 선지자가 말하기도 했고, 불꽃으로 말하기도 했지만 집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우상숭배를 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역사적으로 보면 약소국이니까 멸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라고 한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너희가 우상숭배를 해서 망한 것이라고 한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석했다. 성경은 전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요즘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실존론적인 해석이겠는가?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힌 것은 힘이 없어서 먹힌 것이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망한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견해는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은 끝이 없다.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기독교가 해답이 없으면 말세를 기다린다. 답이 없으면 꼭 같다. 지금 교회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볼 때는 똑같다.

천사시대, 구약시대는 종결되어야 한다.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제목이 <신약이란 무엇인가?>이다. 워치만니가 쓴 책인데 왕중생이라는 분이 처음 번역을 했다. 이것이 워치만니가 본 히브리서의 제목이다. 그렇게 알고 히브리서를 보면 뜻이 명확해질 것이다. ‘신약이란 무엇인가?’가 이 큰 구원이다. 이 큰 구원이 신약이다. 이것은 예수로 말했다, 아들로 말했다, 이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대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 라(렘31:33).**”는 것이 대전환이다.

밖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생명이 틀려서 안 되는구나. 이유가 사람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무성의해서도 아니고 인간이 나빠서도 아니고 생명이 틀려서구나. 개를 아무리 가르쳐도 개다. 생명을 바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교리를 바꾸면 교회가 제대로 되는가? 제도를 바꾸면 교회가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이다. 성경을 보고 방법을 바꾸면 되는가? 어디서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린다. 요즘은 무엇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빈야드(Vineyard)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방법을 아무리 가져도 안 된다. 개를 훈련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갖고 훈련을 하겠는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최선의 방법을 쓸 것이다. 역시 개는 개다. 개가 사람 될 수 없다. 사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른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앵무새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되겠는가? 불가능하다. 앵무새는 훈련시키면 말을 제법 한다. 주인이 들으면 다녀오셨느냐는 인사도 할 수 있다. 출근한다고 나가면 안녕히 다녀오라고 인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말이 아니다.

앞으로 알파고와 같은 AI(인공지능)가 나오면 많은 분야에서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한다고 한다. 백화점 같은 곳에서 로봇이 서서 어서 오라고 할 시대가 돌아왔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외는 누구도 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 모든 기계가 나와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은 대신 할 수가 없다.

지금의 객관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에 물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교리적인 내용만 전달한다면 기계가 더 잘하지 않겠는가. 핍박 받아도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희랍세계에 들어오면 전부 객관화가 된다. 복음도 사도시대 때부터 나왔지만 그때부터 벌써 희랍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객관화, 객관주의가 되었다. 객관적으로 예수를 증명하려면 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리화가 된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를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증인이기 때문이다. 사도시대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게 되었다.

지금의 과학세계는 객관주의를 통해서 무진장 발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학은 물질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발전시키겠는가? 교리는 객관적으로 발표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어떻게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전하겠는가? 만일 기독교가 교리를 전한다면 앞으로 기계가 하면 된다. 이제는 목사가 필요 없다. 사역자가 필요 없다. 기계가 하면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고 더 잘할 것이다.

천사 시대가 지나가고 앞으로는 기계가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기계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복음이 객관화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음은 객관화될 수가 없다. 인터넷에 누가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해놓았는데, 예수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객관주의이다. 예수가 없는 예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많은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야 된다. 예수 없는데 있는 것은 전부 객관적인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생명으로 전하는 것이다.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증인이 아닌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여 전하면 아주 잘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참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은 성경책만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도 있다. 옛날에 대동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다. 선교하러 왔다가 배가 불타서 성경책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을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일도 있다. 그렇다면 선교사가 왜 필요한가? 성경책만 뿌리면 된다. 책 뿌리기가 쉽지 사람을 키워서 목사 만들기가 쉬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기도 있지만 그런 일이 보편적이게 되겠는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이지는 않다. 그런 객관주의에 속으면 안 된다. 객관주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주머니 속의 예수이다. 내가 언제든 지 쓰고 싶으면 쓰고, 또 쓰고 싶지 않으면 주머니에 넣게 되면 편리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된 데가 당나귀도 말을 했다는 것이다.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돌들을 명하여서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비상시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것은 될 수 없다.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밖에는 전파될 수가 없다. 그렇게 전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가짜이다. 교리로 전파된 예수를 알고서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처음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혜택이었다. 그래도 사람들 사용했었다.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받은 구원은 없다. 모두 사람을 사용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예수가 했다는 생각은 없다.

알고 보면 그때 나는 예수와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은 나의 그런 구원에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노화도에서 나올 때 예수님에게 이끌려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단계가 있었지만 그 단계마다 내가 모르는 분에 의해서 인도 되었다.

이것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이다. 나의 과거를 통해서 구약시대를 경험한 것이다.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한 셈이다. 한번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렸다. 교회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었다. 쪽방 하나를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너무 좁아서 다섯 식구가 그 방에서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사람은 큰 아이를 업고 충주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갔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속수무책이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었다.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특별한 수입이 생겼는데 십일조라고 갖

고 왔다. 그런데 그 돈이 교회에서 받은 월급보다 훨씬 많았다. 내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았다. 그 전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위하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위가 축 늘어져있는 것이다. 도망을 치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준 엘리야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왕상17:6참고). 내가 만일 광야에 떨어졌다면 까마귀가 내 음식을 물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구약을 톡톡하게 경험하였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공급이 언제 끊어졌는가? 내가 C.C.C.에 들어가서 반달 분 월급을 받았다. 그 월급을 받을 때, 그 집사님의 일이 끝나서 공급이 끊어졌다. 무슨 공사를 하면서 생긴 돈인데 그 공사가 끝난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 집사님이 공사를 했던 것이다. 나는 너무 신기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굶어죽이지는 않는구나. 한번 불러놓았는데 나를 양식 없이 죽으라고 하겠느냐는 믿음이 생겼다.

구약을 우리는 다 경험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약을 모두 경험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다. 예수와는 구별되어 있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나는 그때 예수를 몰랐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도저히 몰랐다.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는가? 내 죄가 왜 사함을 받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다. 그때는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였다.

지금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다.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는 그 구원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이다.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위치가 바뀌어진 것이다.

이것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섬에서 육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예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유일하다. 그분이 아니면 원위치가 어디인지 알겠는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알겠는가? 모두 회개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회개하는가? 돌기는 도는데 어디로 회개하

는가? 회개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 양심에서 시작해서 다시 자기 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불교와 마찬가지로 된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이라고 해서 떠나지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불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된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이 내 양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오는가? 다시 내 양심으로 돌아온다. 양심이 괴로울 수도 있고 양심이 기분 좋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밖에 모른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원죄라고 하지만 원죄를 누가 설명해 주는가? 나는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갈 데가 없다. 회개를 해보아도 헛일이다. 예배당에서 수천명을 모아놓고 회개를 시켜도 헛일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날뛰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교리를 철저히 가르치면 죄를 짓지 않느냐고 하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용서를 해놓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못 믿을 일인데 그것을 믿고 좋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발이 땅에 닿는 줄을 모르고 6개월 동안을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3개월 동안을 살았다는 사람도 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 지진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것을 보면 나는 정말 믿음이 없다.

이 큰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위치로 돌아가는 구속의 구원이다. 이것은 한 생명이 되어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준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이 되는 것이지 따로 구속될 수가 없다. 이쪽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내가 위치를 이탈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내 위치를 찾아가겠는가? 사람들이 항상 묻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없다. 생명의 세계는 절대로 그것이 없다.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분이 누린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 천당이 있다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천당이다. 천국이 있다면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것을 떠나서 내가 따로 위치를 회복할 수가 없다.

내가 따로 어디를 갈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예수 안에서 발견되겠는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겠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죽음 안에서 밖에는 나와 동질성이 없다. 내가 거기에 있는 그 사람으로 발견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걸리는 사람도 있다. 또 마귀소리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마귀소리를 하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누가 마귀가 하는 소리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내가 남이 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말을 왜 굳이 하겠는가? 거기서 밖에는 내가 발견될 수가 없다.

뛰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서는 내가 발견될 수가 없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발견될 수가 없다. 혹시 그때는 뛰어내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는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 분으로 신앙한다면 나는 거기서 발견될 수가 없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뛰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발견될 수가 없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어떻게 뛰어내리겠는가? 거기에 와서 비로소 나는 그분과 하나구나. 저분 안에 있는 내가 나구나. 다른 것은 내가 아니구나. 저분 안에 있는 나만 나구나.

그것을 시인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고 평안한지 모르겠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완전히 절망일 것인데 너무나 기분이 좋다. 모든 짐이 내려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니! 그 안에 있다니! 그리고 그 진실 안에 있다니!

내가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진실하신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그 이후로 나는 전혀 방황할 필요가 없었다. 잠을 자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시장에 가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간다고 다른 사람이 되겠는가? 서문시장 갈 때 다르고, 백화점 갈 때 다르겠는가? 나는 그 사람이다. 옛날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닐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버리면 얼마나 불안한가? 붙들고 다니려고 하

니 얼마나 힘이 드는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어디로 가버리면 어떡하는가?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가?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불안하다고 한다.

이적을 행할 때는 뭔가 충만하지만 끝나고 나면 원래 자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허탈하고 불안하다고 한다. 신이 와서 일을 했다. 앉은뱅이가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불안해진다.

총주의 어떤 자매가 무당을 잘 안다. 무당이 신기가 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한다. 당신 조상 묘에 불이 훨훨 타고 있다고 하여 가보라고 하여 가보면 무덤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자 귀신이 있어 그렇게 알아 맞춘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불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도 그럴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다가 나가버리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왜 불안하겠는가?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다. 혹시 내가 좀 잘못해서 빗나갈지라도 내 원 자리가 거기에 있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 그런데 돌아올 수 없으면 불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도시인 광주에 가서 그런 것을 느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사촌형님 집인데, 어릴 때이고 도시이니까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린다. 도심지에 흐르는 강물이 있었다. 그것을 봐두면 언제든지 길을 찾을 수 있다. 길을 잃었더라도 강물만 찾아오면 된다. 강을 따라 가보면 집이 나온다.

푼대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만 찾아가면 된다. 그것이 없으면 넓은 도시에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촌놈이 골목길에만 살다가 도시에 오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나는 예수 안으로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성막을 찾아가는가? 또 왜 성전을 지어놓았는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지어놓았다. 저 공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른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나님은 항상 성막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성막으로 가면 된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장막이 되었다는 말은 성막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분 안에 가면 언제든지 내가 있다.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육

체로 지어진 성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 내가 언제든지 가면 내가 있어야 자기가 그 안에 있다.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있다. 그분만 보면 내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숨겨놓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놓았다. 숨겨져 있는 예수가 아니다. 늦밤을 만들어서 숨겨놓고 보라고 했는가? 높이 달아놓고 모두 쳐다볼 수 있도록 했다. 예수도 마찬가지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3:1).”고 했다. 밝히 보이거늘, 우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다고 핀 것이다.

오늘날도 믿음의 길은 수없이 많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는다. 교리도 이런 교리도 있고, 저런 교리도 있다. 성경 해석도 사람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어느 길을 따라 갈 것인가? 장대에 달린 늦밤을 쳐다보라고 전시해놓았다. 예수를 쳐다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놓았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히2:3.4).”

전 성경은 이 한 사람을 증거하는 말에 불과하다. 이래라 저래라도 있고, 이러니 저러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한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중심이고 핵심이다.

이 한 사람을 증거하는 일이 없으면 성경책은 재미없는 책이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경책 밖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으니까 그렇지 중국 사람들은 더 좋은 책이 많다. 더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책들이 많다.

내가 어려서 배운 것이라서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공자님 말씀이나 맹자님 말씀, 장자님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다. 예수님 말씀은 추려보면 몇 말씀이 안 된다. 그리고 들어봐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다.

병자를 고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물었다. 우리와 똑같다. 예수님이 왜 안 된다고 대답했는가? 대답하시지 않았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고 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는 말이 대답인가? 대답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으면 될 줄로 알지만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누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저주이다. 고수들을 만나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해버린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것지 하고 생각하고 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답이 아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면 엉뚱한 대답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18:18).”,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라고 대답하셨다. 그 사람이 대답이라고 생각했겠는가? 물어본 사람에게는 전혀 대답이 안 된다.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과 같이 질문을 해보라. 대답이 되는가? 대답이 안 된다.

그분과 하나가 아니면 아무 대답이 안 된다. 그런데 공자님이나 맹자님에게 가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다. 수양하려면 그곳으로 가면 된다. 좋은 말씀 들으려면 그곳으로 가면 된다.

예수와 하나 되는 길!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예수와 하나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율법이다.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는 노래가 있는데, 백날 불러도 되지 않는다.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닮아지겠는가? 닮아지지 않는다. 예수 같은 행동을 한다고 예수와 닮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이 없어서 배필을 지으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을 다 이끌어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 아담이 이름한 바가 곧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바꾸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고 한다. 이름을 지었는데 내 생명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말이다. 호랑이도 있고 귀신도 있는데 내 생명과 같은 배필이 없다는 말이다.

하와는 결국 내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야 한 생명이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고 말한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니고서는 배필이 안 된다.

간 이식을 하면 나의 면역체계와 들어온 간의 면역체가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고 한다. 그러면 불지를 앓기 때문에 둘이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면역을 약하게 하는 약을 쓴다고 한다. 대포로 싸우던 놈을 소총으로 싸우게 만든다.

그런데 잘못하여 면역체계가 너무 내려가 버려서 다른 질병이 침입하면 죽는다. 지금 누가 그런 경우에 있다. 루퍼스라고 자가면역질환인데 자기 면역끼리 서로 싸우는 병이다. 이 병을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싸우는 놈을 힘을 약하게 하여 덜 싸우게 만든다.

점점 약하게 싸우다보면 면역체계 자체가 약하게 되는데, 그때 대상포진이 와버렸다. 면역을 떨어지니까 대상포진이 왔는데 감당을 못한다. 약을 쓸래야 쓸 수도 없다. 대상포진이 왔으니까 면역체계를 높여야 되는데, 반대로 낮추어야 되니까 고쳐지겠는가.

생명과 생명이 연합이 되지 생명이 아닌 것은 연합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따르고 흉내를 내려고 해도 한 생명이 아니고서는 따를 수가 없다. 배필이 될 수 없다.

이 큰 구원! 이것은 엄청난 말이다. 이것은 구약의 구원과 너무나 다른 구원이다. 우리도 구약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처럼 되고 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바로 바알을 섬긴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해도 그 다음에 죽게 되었는데, 절에 가면 틀림없이 낫는다고 하면 또 가지 않겠는가? 가게 된다.

이 어둠의 세계, 모르고 가는 세계이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구원이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모르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구원이다. 내가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다.

이것은 변동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큰 구원이다. 우리는 불안한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구원 안에 있다.

이성이냐 감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주의에게 해보려면 해보라. 앞으로 세

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른다. 지금 철학자들은 앞으로 과학시대가 되고 철학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겠느냐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도 기독교인이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더 문명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만다. 왜냐하면 같은 속에 있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 그것과 관계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다. 그렇다고 신앙도 아니다. 다른 세계이다.

지금 전통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주의에서는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진다. 물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 전 세계가 그렇다.

그렇지만 이 세계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문명의 발달과 전혀 관계가 없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아무것도 방해될 것이 없다. 이것은 과학의 세계도 아니고 철학의 세계도 아니다.

이번에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세계들이 있으니까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하지만 창조론도 상관이 없고 진화론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진화론을 믿으면 저주가 된다. 이론적인 창조론을 믿어보았자 아무 변화가 없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모두 소용이 없다. 진화론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창조론은 더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성경을 볼 때 나에게 복이 되는 것만 안다면 진화론이 오든지 창조론이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밥 먹고 배부르게 잘사는 사람에게 밥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빵만 먹어야 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밥을 먹고 살았다.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창조론적 구원을 받았거나 진화론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어느 시기에 가면 와르르 무너져버린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고 만다.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은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노아의 방주는 떠있었다. 물이 많을수록 방주는 높이 떠있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에 휩싸이는 구원이 절대로 아니다. 문명을 두려워할 구원이 아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문명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을 능가할 수 없고 이 속에 묻혀 가야 되는데 살아남겠는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전부 과학 같은 것을 배우는데 과연 살아남겠는가? 그렇다면 창조과학회 같은 것이 생겨서 진화론은 아니라고 아무리 해보았자 또 다른 이론이 생긴다.

진화론이 생긴 이후에 소위 기독교 과학자들이 섬으로 갔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지금은 진화가 진행 중인 것이 없더라는 것이다. 원숭이가 진화되었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것이다. 한쪽 뺨을 치고 났더니 다른 쪽 뺨을 쳤으니까 응수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연구한다. 끝이 없다.

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로 말미암은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이 같이 큰 구원”을 전해야 된다. 어떤 물결에도 전혀 상관없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가 비가 많이 온다고 문제가 되겠는가? 물은 깊을수록 배가 더 잘 뜬다. 물이 많을수록 배가 잘 뜬다. 그러므로 비가 많이 올수록 방주는 신나게 올라가는 것이다.

싯덩어리로 만든 배는 한 군데 구멍이 나면 그냥 가라앉아버린다. 그런데 나무로 만든 배는 한군데 구멍이 나도 짐만 없으면 떠 있다. 나무는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고향집 앞이 바다이기 때문에 배가 돛을 달고 가다가 회오리바람에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다. 뒤집어졌는데도 배는 거꾸로 떠 있다. 배가 떠 있으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어 나왔다. 세월호는 물속에 가라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다.

나무배는 옆어져도 떠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던 사람은 기어 나와서 산다. 방주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놓았으니까 비가 오면 올수록 더 높이 뜨는 것이 가라앉겠는가.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의 양력이 있기 때문에 배는 훨씬 가볍게 뜬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다. 시시한 구원이 아니다. 문명에 휩쓸릴 구원이 아니다. 문명이 휩쓸리지 않을 방주를 지어야지 방주를 짓는다고 쇠로 지어서 구명

이 나면 그만이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 장래가 없다. 어떤 것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잘해준다. 물이 물어나니까 방주는 점점 뚫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라라 산에 있다가 물이 점점 불어나니까 방주가 뚫다. 아라라 산에 있을 때는 육지니까 방주가 꼼짝을 못한다. 물이 불어나니까 방주가 뚫뚫 떨어져 온 세상을 떠다니게 되었다. 우리 구원도 그런 구원이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 큰 구원을 놔두고 쓸데없는 것을 하면 망한다. 헛된 것을 찾다 보면 망한다. 천사들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이 큰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갈 길이 없다.